바라밀현장

부산 맑고향기롭게 목욕봉사팀

부산 반여동 보경(17)이 집앞에 부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이동 목욕봉사 차량이 서있다. 욕조가 없는 집안에 욕조가 설치되고, 이동 차량의 보일러에서는 물이 데워지고, 이동식 탕옆에는 비누, 샴푸, 수건 등이 놓여있다. 30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이 소요된 목욕준비가 끝나면 몸이 불편한 이를 탕까지 데려오는 일로부터 본격적인 목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이동 목욕봉사에 나선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의 이복림 보살을 비롯한 맹경숙, 신원조, 이연희 보살이 본격적으로 힘을 쓴다.

산소호흡기를 의지해 겨우 숨을 쉬는 보경이를 탕으로 옮기는 일은 네 사람이 힘을 합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해 축 늘어진 보경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니와 호스가 연결된 상태로 목욕

◇맑고 향기롭게 목욕봉사팀은 매주 수요일 중증 장애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씻으며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배운다.

목욕봉사 자체가 기도·수행

매주 수요일 8명이 2개팀으로 나눠 활동

중증 장애인과 함께 '마음의 때' 벗기기

을 해야하는 상황이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 목욕봉사에 앞서 받은 교육과 맑고향기롭게 노인건강센터에서의 목욕봉사 경험으로 축적된 이들의 능숙한 움직임은 보경이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목욕탕에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보경이가 따뜻한 물이 가득찬 탕에 들어가 목욕을 즐기는 동안, 때를 씻기는 봉사자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한사람은 몸을 부축하고 한사람은 구석 구석 때를 씻기고, 또 한사람은 맑은 물로 헹구며 보경이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씻어 내린다. 때를 밀때도 비누칠을 할때도 '장애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졌으면' 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은 목욕 봉사 자체를 수행과 기도로 만들어버린다.

목욕이 끝나자 여기 저기 물이 튄 방청소와 걸레 빨기 등 꼼꼼한 뒷정리를 마친 후에야 이들은 보경이 집을 나섰다.

지난 달부터 시작해 매주 수요일마다 8명이 2팀으로 나눠 활동하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의 이동 목욕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끝이 난다. 반여동, 금곡동, 토성동 등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건강한 사람보다 오래 걸리는 목욕시간 때문에 겨우 3명을 목욕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이 직접 찾아가 목욕시키는 장애인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조차 분명히 표현할 수 없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중증장애인이 대부분.

봉사자들은 "내가 건강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감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선물. 이것이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봉사자들이 일주일 내내 목욕봉사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자원봉사할수록 신심나요 내 몸이 몇개라도 됐으면…"

맑고향기롭게 이복림 보살

"목욕봉사 가는 날을 기다릴만큼 보람과 기쁨이 큽니다. 20년 넘도록 절에 다녀도 알지 못했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 행복을 봉사현장에서 만끽하고 있지요."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목욕봉사팀의 최고 선배인 이복림(50. 부산 당리동) 보살은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신심이 나고, 몸이 몇 개라면 더 좋겠다"는 말로 자원봉사의 즐거움을 전했다. 화요일엔 대학병원 암환자 간호, 수요일은 이동목욕봉사, 목요일은 노인건강센터 목욕봉사, 넷째주 수요일은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등 이보살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몸 한 개로는 벅차 보인다. 2001년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한 이보살의 봉사 이력은 처녀시절, 성애원에서의 1년 6개월 자원봉사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오래됐다. 그래서 '타고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이 보살은 "봉사현장의 체험을 통해 마음자리 바로 찾고 후회없이 사는 참다운 인간의 길을 배워가고 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번이고 되풀이 했다.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참회의 방편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참회의 두 방법…이(理)참회·사(事)참회

절·독경·사경·경전공부도 참회 방편

정보명화(60 · 부산 거제동) 보살은 매년 한번씩 삼천배 참회기도를 하고 있다. 몇십년째 이어온 참회기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간절해지고 있다. 삼천배 참회는 몸은 고달프지만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못을 짓지 않도록 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삼천배 참회기도 도량인 감로사의 보명화 신도회장은 "참회를 통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뉘우치는 일은 밥먹은 후의 설거지와 같다"고 했다. 밥을 먹었으면 그릇을 정갈히 닦아 놓아야 다른 음식을 또 담을 수 있듯,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멈출수 없는 것이 참회라는 말이다.

보명화 보살의 경우처럼, 가장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참회법으로 절을 꼽을 수 있지만, 참회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예불(禮佛)이나 송경(誦經), 절 등의 작법을 통해 허물을 고백하여 참회하는 사참회(事懺悔)와 이지적으로 죄의 성품을 참구해서 지은 바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는 이참회(理懺悔)가 그것이다. 사참회가 구체적인 죄업을 일일이 돌아보고 다시는 그 허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는 반면, 실상의 도리를 관하여 죄를 소멸하는 이참회는 진리의 궁극에 이르는 방법이기도 하다.

"절을 하면서 잘못들을 하나 하나 돌이키다 보니 그 잘못이 모두 내 마음의 작용임을 알게 되더군요. 그 이후 마음의 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참다운 불법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죠." 자비화(49 부산 금정구) 보살의 말은 사참과 이참이 결국 하나임을 잘 보여준다.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 죄의 자성이 본래 없어 지난 날의 나쁜 습이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죄업이 일시에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참회며 육조 혜능 스님이 설한 일체 상이 끊어진 무상참회(無相懺悔)이다.

◇부산불교교육원 참선교실의 정진 모습. 참선을 통해 마음의 실체를 깨달으면 나쁜 습성을 일시에 녹이고 죄업 또한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혜능스님은 "범부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다만 앞전에 지은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른다"고 경책하며 "언제 어느 때나 생각 생각 그 마음을 밝혀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한다면 자기의 법신을 볼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이득이 있다"고 참회의 참 뜻을 일러 놓았다.

매일 자신의 참성품을 돌이켜 보는 절, 독경, 사경, 경전공부, 참선 등의 방편 수행을 통해 모든 악을 멀리하고(諸惡莫作), 모든 선을 행하는(衆善奉行) 일체 작용의 근본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임을 알 수 있다.

천미희 기자

마음비추기

'망설임의 병' 어떻게 다스릴까

사람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지난날들을 돌아보는 일이 잦아진다. 현재의 자기모습을 보고 때로는 '만약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념을 짓기도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상상해 보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마도 무척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향방 없는 삶을 살았으리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이런 성격을 고쳤다고 여기지만, 부끄럽게도 나의 성격 가운데 못난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럴까 저럴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었다. 아마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로 기억된다.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는 집과의 거리가 15리도 넘는 시골 학교였다. 큰 비가 오거나 많은 눈이 내리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힘들게 되어 부모님들이 학교에까지 마중 나오는 일이 많았다.

그날도 큰 비가 내려 어머니께서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문제는 학교가 있는 동네에 외갓집이었는데 그것도 바로 학교 담 옆이었다.

그 때 어머니는 우산을 받쳐 들고 친정집이 생각나셨는지 외갓집에 잠깐 들러 저녁이라도 얻어먹고 비가 그치면 집으로 가자고 하셨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했고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외갓집을 향해 걸어가셨다. 그런데 몇 발자국 쫓아가기도 전에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좀 못마땅하신 듯하다가 다시 발길을 집 쪽으로 향했다.

나의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외갓집으로 가자고 했고 어머니는 서너 차례를 따라서 응해주셨다. 그러기를 몇 번 되풀이 했을까. 드디어 어머니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나의 비닐 우산대를 빼앗아 때리시는데 집에 올 때까지 그치질 않았다. 이 일로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크게 책망하셨고 급기야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끔찍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어릴 때의 성격 구조였다.

부처님 법을 만나 잘못된 성격을 단호하게 고쳐 왔기 때문에 이나마 방황이 그쳤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과거의 내 모습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 결정을 내릴 때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 망설임은 결국 나약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성격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후회하고 연연해하는 마음을 끊는 것이 용기요, 지혜라 말할 수 있다.

寂然

결 의 문

하늘이 분노하고 산이 흐느낀다. 한국불교 16년의 역사 속에서 이토록 수행환경이 파괴된적이 있었던가!!

이땅의 개발주의자들은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채 눈앞의 조그마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인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개발을 전국토에서 자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의 안녕과 민족의 문화를 한몸에 지니고 있는 불교의 수행환경이 방방곡곡에서 침탈 파괴되고 있으며 급기야 우리 기장의 아니, 부산시민의 기도처인 청정도량 무궁사 마저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무차별 파괴하려한다.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무궁사 수호대책위원회와 부산 불교도들은 수행기도처인 무궁사를 목숨걸고 지키기 위하여 총궐기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지역환경 파괴와 수행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청이 자진하여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전국토에서 이루어지는 무차별적인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그 결과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채를 물려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국토개발에 대하여 재 검토하라.
- 한국도로공사는 자연을 훼손하고 불교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도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 수행환경, 자연환경, 달음산을 지켜내자
- 환경파괴, 불교침탈, 도로공사 중단하라
- 대한불교조계종 무궁사를 지켜내자
- 수행환경 파괴하는 도로공사 각성하라
- 기장군수 앞장서서 수행환경 보호하라
- 불교도가 모두 뭉쳐 달음산을 지켜내자

달음산 무궁사 절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무궁사 주지 대 한

비상대책 위원장 김찬묵 무궁사 신도회장 이균호
비상대책 국 장 김 영 무궁사 부 회 장 최정봉
무궁사 부 회 장 보현행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월리 617번지(상리마을) ☎ 051)727-2877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 3세 종정 봉암 대종사 및 제 7대 총무원장 법철 종사 추대 및 취임식

만추지절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3세 종정 봉암 대종사 추대와 제7대 총무원장 법철 종사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02년 10월 25일(음 9. 20) 금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일붕선원(신영동) 대법당
3. 연락처 : 총무원 ☎ 02-394~9468/9

추대 및 취임식 봉행위원회

대 법 주 : 현 붕해 대종사
지도위원 : 김 정각, 최 원정, 강 청곡, 고 혜명, 정 동명, 주 대장 종사
위 원 장 : 오 현각
부위원장 : 김 일암, 김 혜묵, 김 법원

봉행위원
이 혜정, 박 갑수, 오 도일, 전 효봉, 전 해광, 이 송천
최 일선, 김 대성, 정 법보, 김 혜성, 서 철종, 오 청암
김 무정, 김 진소, 정 지연, 임 무원, 유 원응, 이 덕암
윤 정각, 신 종호, 황 공심, 장 종산, 박 청원, 김 월광
김 지관, 박 원경, 박 유송